

아픈 이웃 찾아가는 '약사보살들'



◇12일 종묘 팽각정 앞 불자약사보리회의 무료투약 현장.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자 약을 받기 위해 모인 노인들과 불자들이 100미터가 넘는 줄이 이어졌다.

“무릎이 자꾸 시리고 쭈셔. 골다공증이야.”
 “할아버지가 아픈 거 아니잖아요?”
 “응, 우리 할아버지 아프지. 잘 걸지 못해. 알아서 잘 해줘.”
 한 시간 넘게 줄을 선 끝에 차례가 된 김명철 할아버지(82)가 불자약사보리회의 무료투약 상담을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았다. 일년 째 걸

음걸이가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 골다공증 약을 받지만, 여전히 김 할아버지는 자기가 환자라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불자 약사들은 먼저 김 할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차려 약을 챙겨준다.
 서울 종묘 팽각정 앞. 매달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불자약사보리회의 '실직자 및 쪽방 거주자, 불우노인

무료투약' 봉사 현장이다. 98년 8월, 온갖 병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불자 약사들은 5년째 이곳에서 '약사보살'의 자비심을 실천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로 갑자기 직업을 잃거나 거리로 나왔을 실업자와 노숙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렇게 시작된 무료투약 행사에서 가난한 이웃들은 매년 400만원

상당의 약품을 전달받았고 그 액수는 매해 1억 2천만을 넘는다. 감기에 걸려도 해열제 하나 사기 힘든 이웃들을 돕겠다는 서원은 지난해 12월까지 '무료투약 7만명 달성'이란 성과까지 거두었다.
 이러한 불자약사들의 자비행이 알려지자 여러 곳에서 뜻을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98년 12월에는 의정부 북부지

바라밀현장 불자약사보리회

터를 개소했다. 매주 월·화요일 저녁마다 사회의 관심 밖에 머물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숙자를 향해 자비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창립 때부터 총무를 맡고 있는 유호순 약사는 "IMF 관리체제가 끝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이웃들이 많다"며 "이들을 도와 일

'무료 투약 7만명 달성' 성과 거뒀 서울역에 노숙자진료 센터도 운영

김 검정조 판사가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고 밝혔고 99년 5월에는 고려수지침협회 회원들이 수지침 봉사를 함께 할 뜻을 건네 왔다.
 2000년에는 무료 투약봉사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시 시정참여사업에 응모해 예산 지원 2000만원도 받아냈다.
 약사보리회원들의 보살행은 지난해에 더욱 거세게 불붙기 시작했다. 2월에 시작한 서울 을지로 3가 노숙자 무료투약 봉사를 계기로 4월에는 서울역 노숙자진료센

터를 하다보면 남을 돕는 일 자체가 하나의 수행을 깊게 하는 일이란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불자약사보리회는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서울 종묘,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10시 서울역 파출소 앞,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오후 2~6시 경기도 금촌 자비정사에서 무료 투약봉사를 하고 있다. 문의:(02)959-0082, 후원계좌:16704-0596413(서울은행, 예금주 유호순)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n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증엄 스님 (上)

(대만 자제공덕회 회장)

대만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스님



◇자제공덕회가 태동된 정사정사.

자비로운 눈빛에 중생구제의 굳은 서원을 담고 있는 대만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 회주 증엄(證嚴) 스님. '관세음보살의 화현'으로 일컬어지며 대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증엄 스님은 자비회사(慈悲喜捨)의 큰 서원으로 고난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펼쳐 만세에 빛나는 구제사업을 일으켰다. 1966년 증엄 스님의 지도아래 30여 신도가 조직한 '불교극단(佛教克難) 자제공덕회'가 37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400백만 명의 회원과 5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회로 확대해 전하의 중생을 사랑해야 한다."
 우주적인 자비심으로 충만한 스님은 이후 몇 번의 식발 출가가 좌절되자 조용히 수행할 곳을 찾아 대만의 북부, 중부, 동부 등으로 만행하다 마지막에는 화련현(花蓮縣) 수림향(秀林鄉) 아래 작은 절인 보명사(普明寺)에 머물게 된다.
 1963년 2월, 증엄 스님은 타이베이시 입제사에서 열린 수계식에 참석하려 했지만 은사가 없어 명부에 등록할 수 없었다. 수계식이 열리기 얼마 전 증엄 스님은 우연히 <태허(太虛) 대사 전집>을 사서 읽은 인연으로 인순(印順: '인간불교'를 제창한 대만 불교계의 최고 원로) 대사를 뵈게 된다.
 공경심으로 찾아뵈니 인순 대사는 어렵지 않게 은사가 되어주겠다고 응답했다. 급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아 아닌 대아라야 무슨 일이든 성취 여성도 생명·사회 구제 적극 나서야

병원, 종합대학, 방송국 등 산하시설 직원 수만 2천여 명의 조직을 갖춘 세계 최대의 자선단체로 성장했다.
 이러한 업적은 자신만을 위한 소아(小我)를 버리고 인류의 고통을 구제하려는 대아(大我)를 가진 체 살아간다면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증엄 스님의 원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인순 대사는 증엄 스님을 위해 간단한 법문을 설했다. "너와 나의 인연이 수승(殊勝)하구나. 이왕 출가를 했으니, 매 순간 불교와 중생을 위해 살아야 하느니라." (계속)

김재경 기자



◇증엄 스님

1937년 중일전쟁 발발 2개월전에 출생한 증엄 스님은 어려서부터 보살의 길을 걷을 만한 자비심을 보였다. 15세 때 어머니가 위장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만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증엄 스님은 "제 수명이 12년 줄더라도 어머니가 그만큼 오래 살길 바랍니다"고 기도했다. 효심에 하늘도 감동했음인지, 모친의 병은 기적처럼 나아 수술이 필요없이 약을 먹고 완치됐다. 그러나 5년후 이번에는 부친이 뇌중풍으로 갑자기 사망, 스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 이때 부친의 묘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 저곳의 절을 찾게 된 것이 불법(佛法)과의 인연을 맺게한 원인이 됐다. 뒷날 자운사의 수도(修道) 스님의 지도아래 증엄 스님은 생명의 근원과 인간 행복의 문제에 대해 사유하기 시작해 마침내 하나의 결단을 내린다.



불자약사보리회 백경숙 회장 "나누면 주변이 청정해져요"

지난해 7월 불자약사보리회 3대 회장에 취임한 백경숙 약사(52)는 "보시행을 하다보니 이 일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육

망과 번뇌를 털어내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이 라는 것을 알겠다"고 말한다. 서울 제기동에서 지혜당이란 약국을 운영하는 백 회장은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할 때는 늘 괴롭기만 했는데 남과 함께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내 주변이 청정해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깨달음이 불자약사들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어, 회원들은 불우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면 뭐든지 자기일처럼 발로 뛰면서도 전혀 상을 내세우지 않는것이 고맙다고 덧붙인다.
 백 회장은 "사회가 날로 각박해지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올해 내로 불자약사보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후원회의 구성이나 뜻있는 의료봉사단체와의 연대 활동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분이 수행 서적 한 권을 들고 찾아왔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써내려간 글인데 온통 남들은 다 잘못되었고 자기만 옳다는 주장이다.
 수행자끼리 법이 맞되거나 어긋났을 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비판을 가하거나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도 일방적이고 편협되어 있고 수행인들 가운데에는 이와같은 견해를 가진 이들이 없지 않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문제의 내용은 <능엄경>에 나오는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반연심(攀緣心)과 식정(識精)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반연심이란 거슬러서 그림자처럼 대상을 끌어들이는 중생이 평소 쓰고 있는 '나' 라고 여기는 마음이고, 식정은 그 반연심이 모이고 쌓여 이루어진 의식(意識)의 속성인 순수한 성품(精)을 말한다. 저자는 그

성을 보려면 반연심이나 식정을 완전히 타파해야만 되는데, 원효나 성철 스님등도 이 이치를 몰랐으므로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우선 식

말이다. 그러니까 식정이란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 그대로의 성질이 정밀하다는 말로, 부처의 성질과 다름이 없다고 이해한다. 즉, 반연심이나 식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성품인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니 잘못 알고 있는 수가 있다.
 <능엄경>에는 비단 손수건을 꼬아 매듭을 만들었을 때 매듭만 풀면 매듭 그대로가 비단 손수건이 된다고 했다. 이는 중생과 부처의 마음이 본래부터 둘이 아닌데, 마음이 묶이고 묶이지 않고의 차별이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인간의 모든 의식은 더럽고 어두운 것에 오염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청정 그 자체라 본질은 부처와 다름이 없다. <능엄경>에서의 식정은 바로 이를 설명하려는 것이지 식정 따로, 불성 따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두고 싶다. 적연(유마선원장)

마음비추기

반연심·식정 자체가 불성

책에서 <능엄경>을 해석한 운허 스님이나 심재열 법사님 같은 분은 식정을 불성으로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이라 했다.
 저자는 불성이란 반연심이나 식정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므로 불

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부터 잘못되어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식정은 글자 그대로 '식' 즉, 마음이 지니고 있는 '정'으로, 여기서의 정은 식이 지니고 있는 맑고 뚜렷한 정밀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고, 반연심과 식이 지니고 있는 성질 자체가 불성이라는 말이다.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이들 중에는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고 하니까 불성을 마음 안에 존재하는 또다른 특별한 무엇인줄